

조인성 효과 통했다 '라디오스타'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조인성 효과는 달랐다. '라디오스타'가 조인성의 출연에 힘입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감웃을 벗고~' 특집으로 배우 조인성, 배성우, 박병은, 남주혁이 출연했다. 조인성에 출연해 시청률도 응답했다. 1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라디오스타'는 수도권 기준 1부 7.0%, 2부 7.8%를 기록했으며 네 사람이 '인시성' 속 캐릭터를 설명하는 부분은 8.0%의 시청률로 최고의 1분에 올랐다. 시청률은 변함 없이 동 시간대 1위, 수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 "불러주셔서 나오게 됐다"고 인사한 조인성은 '인시성'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 배성우, 박병은, 남주혁이란 게스트 구성과 관련해 "제가 막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렸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선사했다. 모든 배우들과 케미를 자랑한 조인성이지만 배성우와 티격태격하며 '똥과 제리' 같은 케미를 선보여 웃음을 전했다. 배성우의 토크가 길어질 줄 "너무 길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옆길로 빠질 때에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고 제재하며 토크 정리에 나서며 엄격한 예능 감별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조인성은 고장환과의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지난 1월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고장환은 카드사 직원에게 군 시절 인연을 맺은 조인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본의 아니게 알려줬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때 나도 마음의 상처가 컸다"며 말문을 연 조인성은 "카드사 직원에게 누가 내 번호를 알려줬는지 물어봤는데 절대 안 알려 주시더라. 그게 더 화났다"며 "내가 다그치니까 고장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장환이가 그럴 일 없는 데라고 생각하고 전화했었는데 맞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 왜 그랬냐. 너랑 나랑 그

조인성·배성우·박병은·남주혁 출연

런 사이였나"라고 말했다며 "지나간 사건이다. 이후에 통화는 못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조인성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올랐던 중국 여행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배중욱 신배님과 함께 갔다"고 말한 조인성은 "캐키지 여행은 아니었고 법륜스님이 1년에 한번 역사기행을 간다. 그거였다"며 "사진 찍히면 공간 쪽에서 보안 문제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단체복을 입었다. 하지만 현지인이 알이보고 찍은 거 같다"고 털어놓았다. 조인성이 배성우, 박병은의 사전 인터뷰를 따라갔다는 비하인드가 공개되자 "자기 뒷얘기 할 까봐 불안할 수 있다. 철저하게 막더라"고 받아치며 재치를 드러낸 배성우는 조인성과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다. 최근 철저하게 운동을 한다는 말에 배성우는 "몸을 막 만든다기 보다는 나이가 느껴지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내 "운동하는 이유가 유류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다"고 MC들이 말하자 배성우는 "듣기로는 운동하면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며 손동작으로 설명했다. 이를 본 조인성은 "순, 좀 그 민해라. 잡혀 간다"고 질색하며 제지해 웃음을 자아냈다. 배성우는 이러한 지적에도 이렇듯 웃어넘기지 않고 "운동하면 유류기 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며 "내 료는 내가 알아서 잘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답해 더욱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배성우는 앞서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대학동기 송창의와 김영민의 "대본을 발로 본다"던 폭로에 대해 "대본을 어떻게 발로 본다"며 "두 손으로 들고 동공으로 본다"고 진지하게 해명했다. 배성우는 "감사하게 대본이 많이 들어온다. 다 하고 싶지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욕심에는 다 하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방송 내내 넘치는 우애를 자랑한 '인시성' 배우들은 '배성우 풀이'로 하나 되는 광경을 보여주며 더욱 소스케 했다. 박병은이 "배성우가 진화를 잘 안 받는데 메시지는 확인을 잘 한다"고 서운한 점을 호소하자 조인성 또한 "성우 형이 운동을 할 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쓴다. 진화가 오면 안 받을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배성우는 멋쩍은 듯 웃었고 조인성은 "성우형과 진화를 하려면 이 지워진 순간 바로 진화해야 한다"고 팀을 전수해 눈길을 모았다. MC 윤종선이 "라스"를 기점으로 해서 배성우 씨는 이제 토크스타로 공인을 하자"고 하자, 조인성과 박병은, 남주혁이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쳐 순식간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훈훈했던 순간도 있었다. 박병은은 배성우와 함께 오디션을 보러 다

닌 시절 현금 300만원을 빌렸던 일화를 털어놓으며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리려고 전화했는데 말을 하자마자 바로 계좌 부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한 달 안에 갚았다. 얼마 전에 '그때 빌려워서 고마워'라고 했더니 '갚았어?'라고 하더라. 최근까지 안 갚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였다. 그럼에도 웃고 대해줬다는 점이 대단했다"고 칭찬했다. 이에 배성우는 "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준 거다. 제가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을 거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했으니 빌려줬던 것"이라고 의연하게 말했다. 박병은은 진중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종일관 현장에 웃음폭탄을 부렸다. 낚시가 취미라고 밝힌 박병은은 본인 이 잡은 주구미를 '인시성' 배우들과 함께 먹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조인성은 "한 번 먹었잖아"라고 말했고 박병은은 "그럼 한 번 먹지 말고 번을 먹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물고 물리는 토크 욕심을 부렸던 조인성과 배성우, 박병은은 2주 편성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자마자 더욱 눈에 불을 켜며 이야기 이어 나갔다. 결국 씬 없는 수다 끝에 2주 편성의 꿈을 현실로 이뤄지며 시청자들을 열광케 했다. 특히 방송 말미 예고편을 통해 이날 '인시성' 배우들이 털어놓은 웃음보다 더 강력한 재미를 예고해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진짜 집밥"... '수미네 반찬', 日반찬가게로 선물한 가치



김수미와 세프들이 일본에서 연 반찬가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진짜 집밥 같다"는 평을 들은 이들은 현지 교민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선물했다. 12일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

에서 김수미와 여경래, 최현석, 미카엘, 정호영 세프 및 장동민은 2일 차 영업을 종료했다. 김수미는 "연예계 생활 중 가장 힘들었다"며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교포들에게 반찬으로 정신적 치유도 한 것 같아서 참 잘했다고 칭찬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현석은 "'진짜 집밥이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 여경래는 "선생님이 만드는 음식은 그리움이 나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호영은 "그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보람됐고 힘들어도 재밌었다"며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고, 미카엘은 "서로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동민은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백배, 천배, 만배 더 큰 가치를 얻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미와 세프들은 장사를 준비하며 빠르게 사라져가는 반찬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다. 첫째날 점심 장사가 성황을 이룬 탓에 저녁 장사 때 내놓으려고 했던 반찬을 미리 꺼냈고 이에 따라 둘째 날 저녁 장사까지 할 여유분이 부족했다. 반찬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대접할 백반 재료도 부족했다. 장동민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한국이었으면 식자재를 더 많이 공수해서 내일 장사까지 넉넉하게 준비해서 더 많은 분에게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 점심이면 끝날 것 같더라. 순간 땀방울이 맺혔다. 결국 김수미와 세프들은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다른 백반 메뉴를 만드는 등 손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 김수미는 피곤할 법도 하지만 장사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김수미는 저마다의 이유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하고, 일부러 반찬으로 사가기 위해 들게장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손님에게는 팔지 않는 들게장을 반찬봉에 담아 선물하기도 했다. 또 손님들과 소통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았다. 일본에서 연 반찬가게는 이틀간 총 매출만 1천125만 원이었다. 이는 일본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AMAs 첫 노미네이트...한국 그룹 최초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2018 아메리칸뮤직어워즈'에 한국 그룹 최초로 후보가 됐다. 이쯤되면 그들이 걷는 길이 한국 가요계로 역사라는 말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2018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이하 AMAs) 측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각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 한국의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은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이들과 함께 후보로 오른 가수는 카디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송 켄데스 등으로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쟁쟁한 가수들과 경쟁하게 됐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개최

된 2017 AMAs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지만 정식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또 한번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기에 실제 수상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같은 날 오후 8시 방송된 미국 NBC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 출연해 오프닝 축하 무대를 꾸렸다. 새 앨범의 타이틀 곡 'IDOL'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였고 MC 타이타라 뱅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이밴드의 히트곡 무대를 함께 했다"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그룹으로 'BTS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행보만 살펴봐도, 한국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 디지털 앨범 차

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고 한국 가수 최초로 3개 앨범을 연달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과 싱글 차트에 2주 연속 진입시켰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은 빌보드 200 89위, 'IDOL(Feat. Niki Minaj)'은 핫 100 81위에 이름을 올리며 2주 연속 차트에 성공했다. '빌보드 200'에선 지난주 1위에 이어 8위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톱 10을 기록한 것. 또한,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가 발매 8일 만에 193만장의 판매량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을 두고 국가 대표 운동 선수만큼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기록과 이슈의 주인공인 방탄소년단. 오는 10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스포트 공연장에서 열리는 '2018 아메리칸뮤직어워즈'에서 새 기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음력 8월 5일)



▶**신세** 내 마음 달래길 없어 위로해줄 사람을 찾고 있으나 믿을 수 없다. 또한 이뤄질 듯하다가 깨져버릴 수 있다. 6, 7, 8월 생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니 더욱 답답함을 느끼는구나. 필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가을 바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세** "참을 인"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 내게 주어진 일만 성실히 하면 오해는 시간이 풀어준다. 금전 문제로 다소 힘에 부치나 소, 쥐, 말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 애정은 해방꾼이 나타난다. 감정을 억제하라.



▶**신세** 애정은 마음과 마음이 진실하게 이어져야 갈등을 빚지 않는다. 책임 있는 연행이 필요하다. 비, 자, 사 성씨는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훗날 헤어지는 격이다.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현재 추진하는 일은 서서히 성사한다.



▶**신세** 지금까지 지연한 일들이 순조롭게 풀린다. 힘들어도 하나씩 차분히 추진하라. 처음보다 나중에 큰 이익이 따라주니 투자하면 대성한다. 5, 7, 9월생 여자는 시댁 식구와 의견 충돌을 빚어 마음고생이 많았다.



▶**신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속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자신감을 되찾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동북쪽에 도와줄 자 나타나니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오, 비, 승 성씨는 자신 있게 노력해 확고한 기정을 만들라.



▶**신세** 적은 투자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음먹은 일을 믿고 나갈 때 귀인이 돕는다. 사, 오, 표 성씨는 책임질 일 생길 수 있다. 언행을 조심하라. 의견 대립으로 거레쳐와 언쟁할 가능성이 있다. 서, 남쪽이 길 방향이다.



▶**신세** 금전은 여성이 관리하라. 필요 이상 지출이 많으니 참고에 있는 곡식을 꺼내 가는 격이다. 유부남은 여자를 조심하라. 비, 토, 표 성씨는 북쪽에 가지 말라. 손재주가 따른다. 애정은 시간만 늦춰질 뿐 이렇진다.



▶**신세** 내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뿌린 씨앗을 명심하라. 당장 힘들고 고��스러워도 새롭게 시작하면 몇 배가 돼 돌아온다. 2, 8, 11월생 혼자 고집하지 말고 기혼자는 아내, 연인 관계는 남자 말을 들으면 득이 오겠다.



▶**신세**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헛된 욕심에 들뜨지 말고, 실속을 차리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으니 마음을 슬기롭게 다스리라. 애정은 급히 서두르지 않는다면 성사한다. 건축업과 의료업 종사자에게는 길일이다.



▶**신세** 현재는 앞뒤가 막막한 상태지만, 동쪽에서 도움 줄 자가 나타난다. 밝음이 찾아오는 좋은 하루다. 우정이 변해 친구와 절호할 수지만, 주위 반대 탓에 신경 쓰게다. 3, 7, 9월생은 우울증을 조심하고, 흰색으로 나를 나타내라.



▶**신세** 지금까지 해온 일에 변동이 있을 듯하다. 서둘지 말라. 다음 달에나 이를 수 있다. 오, 오, 토 성씨 가정의 있는데도 애정을 나누는 것은 길게 가면 불행한 안겨줄 범인을 알라. 미혼자는 결혼 운보다 애정 운이 좋다.



▶**신세**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길운이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운명을 개척하라. 희망이 보인다. 1, 7, 9월생 주위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단, 뒷사람 많은 존중하라.